

韓·中 古寺 공간 조영 원리에 대한 탐구

— 統一新羅와 唐朝 시대를 중심으로 —

강용* · 강준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부교수

I. 서론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제목으로 한국의 산사 7곳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으며, 이는 역사문화공간인 동아시아 고대 사찰 관련 연구들에 활기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불교문화는 인도에서 종교로 성립되어 여러 경로를 거쳐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나라들에 전파되었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불교문화 또한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외래문화라는 수식어가 붙은 상태에서 전파지역의 고유문화와 충돌되고, 마찰이 생기면서 문화적인 융합 또한 형성되기 마련이다. 중국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교문화가 전래되었고, 그중 다양한 민족을 통해 불교문화가 전래되고 있는 외중에 당나라 시대부터 한자(漢子)로 불경에 대한 번역과 해독하는 전문성이 향상되어 중국 전역에 한전불교(漢傳佛敎)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대이며, 불교사찰 또한 대거 출현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경우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살펴보면 신라시기, 통일신라시기에 사찰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교문화가 한반도지역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초기의 사찰문화 역시 중국사찰과 형식적 동질성을 지님과 동시에 한반도지역에 고유의 문화성을 토대로 형식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동양의 조영 공간에 대하여 Liu(2015)에서는 '교우인차(巧于因借), 정재체의(精在体宜)'라고 표현하였다. 모방과 답습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법칙은 있으나 일정한 형식이 없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창작 사상의 특성 때문에 크고 작은 공간들이 각기 상이한 조건으로 인해 각자의 특성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적인 방법으로 고전 조영 공간의 전체적인 구조와 공간 서열의 형성을 고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韓·中 지역에 불교문화가 형성되는 시대인 統一新羅와 唐朝 시대를 중심으로 古寺 공간 조영 원리에 대하여 물리적인 환경요소에 대한 모식도(模式圖)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양의 고유철학인 십간음양오행이론을 통해 공간 조영 원리에 접근하여 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고대 승원이 더 많은 세

계의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관련 연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 되는데 있어 의미가 있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II. 본론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일신라시대와 당나라 시대를 연구의 시대적 범위로 선정하였으며, 문헌 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에 창건한 사찰 20곳과 당나라 시대에 창건한 사찰 20곳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양의 조영 공간은 각기 상이한 조건으로 인해 그 구성이 천차만별이지만, 구조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경관요소 속 하나의 열거를 우위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D에서 물리적인 공간요소와 그러한 요소들의 내적인 의미를 살피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연구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평면의 구성 고찰에 있어서는 복합적 공간, 건축물 군, 복합적 동선, 중심 공간, 오행요소 나무 혹은 연못, 불탑 등 6가지 요소에 대한 평면도 중첩을 통해 韓·中 古寺 공간 속 각각의 물리적 요소에 대한 구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부분은 Tian(2018)은 중국 전통 원림은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원림이며, 원림공간의 기본 조영원리를 제시하고, 간략(簡略)화 된 기본 조영원리 모식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모식도를 기반으로 사찰과 같은 역사문화경관에 맞는 모식도를 제시하고 분석하려 한다. 둘째, 십간음양오행이론을 기반으로 이론 속 서열과 상생상극이론을 둔 요소들이 방위, 순서 등 구체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古寺 공간 조영 원리에 대하여 내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대상지 경관을 바탕으로 십간음양오행이론을 기반으로 상생이론과 상극이론의 색채 분석도 제시와 동시에 공간 속 상생상극이론의 작용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비스대상의 내적인 심리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과 현장조사를 거쳐 韓·中 古寺 공

간에 대한 조영 원리에 대하여 고찰하는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 40곳에 대한 평면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대 사찰 공간을 하나의 모식도로 표현해 냈다. 이는 韓·中 古寺 공간을 가장 간단한 평면 형태로 표현한 개념도이기도 하다. Figure 1과 같이 모식도는 a:복합적 공간, b:건축물, c:복합적 동선, d:중심 공간, e:오행요소(나무 혹은 연못), f:불탑 등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맵 중첩 형태로 모식도 개념도가 완성이 되었다. 둘째, 십간음양오행이론 속 방위와 방향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동, 서, 중앙, 남, 북과 상, 하, 중앙, 좌, 우를 기준으로 韓·中 古寺 공간의 배치 선정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韓·中 조영 문화 속 경관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는 뷰 파인더(viewfinder, 取景器)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韓·中 古寺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고대 국가의 고유 건축문화에서 출발한 건축형태이며, 韓·中 古寺 공간의 건축 양식은 상이하나, 구성에 있어서 Figure 2와 같이 통일신라의 경우 자연자원 속에 사찰을 공간을 창건하는 원중사(源中寺)형태라고 표현 할 수 있으며, 당나라의 경우 사찰 주변에 균영과 같이 방어용으로 사용가능한 회랑 벽을 두고 그 속에 사찰을 창건한 영중사(營中寺) 형태라고 표현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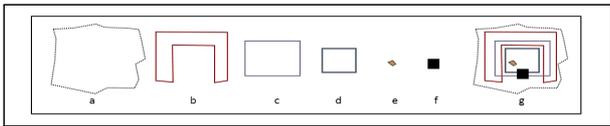


Figure 1. 고대 사찰 공간을 표현한 모식도 개념도 (연구자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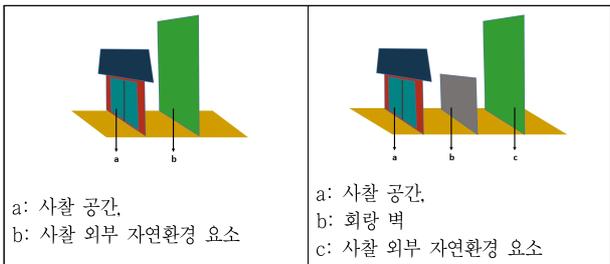


Figure 2. 좌측 원중사(源中寺)형태 개념도, 우측 영중사(營中寺) 형태 개념도 (연구자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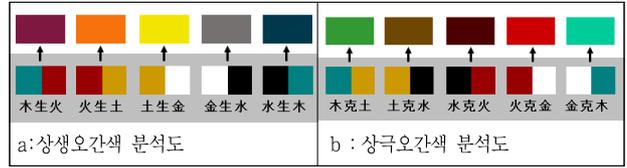


Figure 3. 십간음양오행이론 상생상극 오간색 분석도 (연구자 제작)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오행이론에서 나오는 목(木)요소에 대응하는 청(靑)색상에 대하여 Figure 3과 같이 목 요소에서 뜻하는 청색은 녹색(먼셀 20색상환 속 G10)을 의미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십간음양오행이론에서 나오는 상생상극이론을 통해 형성된 오방색과 상생오간과 상극오간색을 기반으로 사찰 공간에서 이러한 색감을 활용하여 서비스 대상의 내면에서 상생과 비보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韓·中 고전 사찰 경관에 대한 공간 조영 원리에 대하여 십간음양오행이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고전 공간 조영 원리에 대한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환경요소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동양의 고전 역사문화공간을 이해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으며,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동양의 상생상극이론과 같은 다양한 동양철학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해야만 동양의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전통문화를 이어 받아 현대적인 공간을 조영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동양철학에서 나온 상생상극이론을 바탕으로 공간을 배치 및 배색이론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Liu, Yan Chun 역. 2015. 원치(園治, Yuan Zhi). 단행본. Feng Huang Wen Yi & Building Press.
2. Tian, C. Y. (2018) Fifteen Lectures on Chinese Classical Gardens and Modern Translation, Beijing: China Architecture & Building Press.